

대나무와 정자의 고장,

담양하면 대나무, 대나무 하면 담양이 떠오른 **담양**다. 호남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를 번갈아 타고 담양으로 간다. '추성고을(담양의 옛 이름)이라 했던가. 겨울이 찾아온 담양은 어딜 가나 대나무를 만날 수 있다. 마을이 있는 곳에 대숲이 있고, 대숲이 있는 곳엔 마을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이다. 담양 사람들이 대나무에 바치는 정성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매년 음력 5월13일은 죽취일(竹醉日) 혹은 죽술일(竹述日)이라 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해 마을 주변이나 야산에 대나무를 심었다. 일이 끝나면 죽엽주 등을 마시며 마을 주민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화전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엄동설한에 더욱더 푸르러 군자에 즐겨 비기는 대나무의 자태! 예로부터 대나무의 푸름과 마디마디의 울곧음은 선비의 절개와 기상을 상징했다.

담양 여행은 크게 대나무와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읍내 쪽과 호수와 산이 있는 북부, 문화유산이 즐비한 남부로 나뉘 돌아보면 경제적이다. 한 지역을 돌아보는데 반나절쯤 걸리므로 1박 2일 정도는 잡아야 한다.

길손은 먼저 죽림욕장(대나무 체험학습장)으로 간다. 대숲을 거닐며 몸과 마음에 달라붙은 욕심을 비워내기 위함이다. 금성면 봉서리 병풍산 줄기 고지산 아래에 펼쳐진 대나무골 테마공원(www.bamboopark.co.kr). 담양읍에서 24번 국도를 타고 순창 쪽으로 가다 '석현교' 다리를 지나 표지판을 보고 오른 쪽으로 빠지면 된다. 그림 같은 담양호를 중심으로 추월산과 금성산성이 자웅을 겨룬 곳에 거대한 대숲이 들어섰다. 경치가 아름다워서일까? 각종 CF 촬영과 영화 '청풍명월', '혹서선', 드라마 '다모', '여름향기' 촬영지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다. 이곳의 대나무숲은 담양 최대를 자랑한다. 개인(대표 신복진)이 운영하는 대나무 공원으로 유료이긴 해도 모든 게 만족스럽다. 부챗살처럼 펼쳐진 3만여 평의 야산에는 맹종죽과 왕죽, 분죽, 조릿대(산죽) 등 각양각색의 대나무가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다. 어느 순간 바람이 쇠아아~ 댓잎을 건드리고 지나간다. 울울창창한 대숲 길을 거닐며 즐기는 죽림욕은 산에서 즐기는 산림욕과 무엇이 다른가. 대숲에서 번져오는 죽향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다. 머리가 맑아지며 힘이 솟는다. 이곳에서



는 청량한 대숲 바람을 마시며 시원한 삼림욕과 죽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죽림을 빠져 나오면 그 위로 소나무숲이 있는데, 황톳길이다. 맨발로 걷는 감촉이 참 좋다. 입장료 어른 20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의: 061-383-9291.

대나무골테마공원에서 나와 읍내 향교리에 있는 죽녹원으로 간다. 대나무골테마공원이 광활하다면 이곳은 아기자기한 멋을 풍긴다.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기 드문 휴식처다. 영화 <알포인트>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돌계단을 오르니 뽀뽀하게 들어선 대숲 사이로 꼬불꼬불 산책로가 나 있다. 바람도 잠시 휴식에 들어간 오후 3시 무렵의 대숲길은 그윽하고 감미롭다. 대숲길 저 만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다. 대나무로 만든 정자(楹記)에 앉아 하늘로 치솟은 대 줄기를 바라본다. 햇빛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다.

죽녹원 앞에는 담양천을 따라 느티나무, 엄나무, 개서어나무, 푸조나무, 음나무, 벗나무, 갈참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등이 죽 늘어진 관방제림(官防堤林, 천연기념물 제366호)이 펼쳐져 있다. 수령 200년을 헤아리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월의 깊이를 말해준다. 관방제림은 지난 해 '전국 아름다운 숲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숲길은 조선 중기 인조 때 성이성(成以性)이란 부사가 영산강 상류인 담양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고 독을 쌓은 것으로 풍치림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전돼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철따라 독특한 풍광을 보여주는 이 독길은 영화와 드라마, CF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그만이다.

대나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담양에서 반드시 가 봐야 할 곳이 있으니 바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다. 중국이 원산지인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는 미국에서 개량된 수종으로, 1970년대 초부터 묘목을 심어둔 것이 지금과 같은 울창한 가로수길이 되었다. 산림청이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했다.

담양에서 순창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는 담양이 차

랑하는 드라이브 코스 1순위다. 공룡시대부터 살았다는 메타세쿼이아 수 천 그루가 도로 양쪽으로 멋진 그림을 연출한다. 아무리 봐도 멋있는 길이라 사진 한 컷 담아둘 만하다. 인근에 있는 금성산성은 우리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해준다. 장성의 입암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꼽힌다. 산성 정상에 오르면 앞으로는 무등산과 추월산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건너다 보이고, 발 아래로는 담양들녘과 아름다운 담양호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담양호를 따라가는 29번 국도 왼쪽으로는 전라남도 5대 명산의 하나인 추월산(해발 731m)이 우뚝하다. 정상에 오르면 푸른 담양호가 두 눈 가득 들어온다. 담양호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 시간이 있다면 담양호를 돌아 순창 방향으로 내려오면 강천산(일명 광덕산, 해발 586m) 입구에 다다르게 된다. 강천산은 '호남의 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으뜸이다.

길손은 이제 대나무박물관이 있는 읍내로 간다. 대나무와 죽세공예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전시실에는 대나무의 분포, 구조, 성장과정, 약효, 음식 등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돼 있다. 야외 죽세공예전수관 1층에 있는 죽제품 제작 체험교실에서는 매주 토 일요일에 팔랑개비, 붓통, 부채, 단소, 방석 등을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단체일 경우 평일에도 운영한다. 체험료(500-3000원)를 받는다. 죽물박물관(061-381-4111).

담양은 가사문학을 꽃피운 정자촌(亭子村)이기도 하다. 죽향의 고장, 정자문화의 1번지, 조선시대 가사 문학의 본고장. 담양을 따라 다니는 수식어는 이렇듯 다양하다. 가사문학은 우리 나라 고유의 문학으로 4. 4조 연속체의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다. 담양에는 선비들이 시문을 짓고 학문을 논하던 여러 개의 누정(樓亭)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면양정(免仰亭), 송강정(松江亭), 명옥헌(鳴玉軒), 소쇄원(瀟灑園), 환벽당(環碧堂), 취가정(醉歌亭), 식영정(息影亭), 송강 정철의 별서(別墅) 등을 들 수 있다. 봉산면 제월리 제월봉 높은 언



덕에 있는 면양정은 가사문학의 선봉인 송순(1493-1583) 선생이 창건했다.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전면과 좌우에 마루를 두고 중앙에는 방을 배치했는데,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쳐다 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풍수지리학상 뛰어난 터라고 평가받는 이 정자에 서면 가을걷이가 한창인 담양 들판이며 멀리 추월산과 무등산이 아스라하다. 고서면 원강리 언덕에 있는 송강정은 관직에서 물러난 송강 정철이 은거한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유명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저술했다. 조선 중기의 명원(名苑)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별서정원(別墅庭園)의 하나로 꼽히는 소쇄원은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남도 답사 1번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입구부터 훗날하게 솟은 대나무들이 길동무가 돼 주고 우수수 떨어진 낙엽이 길에 뒹군다. 소쇄원의 원래 주인은 양산보(1503-1557)로 그는 정암 조광조(1482-1519)가 기묘사화로 귀양을 가게

되자 처가에서 가까운 이곳에 집이 딸린 정원을 짓고 여생을 보냈던 곳이다. 각 건물이 보여주는 여유로움과 멋, 운치, 수수함은 옛 선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방문객들을 접대하는 광풍각(光風閣)을 비롯해 주인이 사랑채로 쓰던 제월당(霽月堂)과 그 옆의 오곡문(五曲門), 초가지붕으로 만든 대봉대(待鳳臺) 등 하나같이 고풍스럽다. 대봉대에 앉으면 들뜬 마음이 착 가라앉으며 편안해진다. 문명에 찌든 몸과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는 느낌이다. 오곡문으로 들어가는 길 옆 담장에는 '소쇄처사양공지려(瀟灑處士梁公之慮)'라는 글귀가 보인다. 소쇄원을 만든 양산보의 오두막집 '이라는 뜻이다. 정원에는 소나무, 대나무, 버들, 단풍, 등나무, 매화, 은행, 오동, 동백, 치자, 철쭉 등이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소쇄원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엔 담양의 또 다른 정자, 식영정과 환벽당이 있다. 광주호의 푸른 물이 내려다보이는 식영정은 송강 문학의 산실이다. 16세기 중반 서하

당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은 정자다.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 정자는 사선정(四仙亭)이라고도 하며 송강 정철이 '성산별곡'을 탄생시킨 곳이다. 식영정 밑에는 부속건물인 부용당과 서하당이 조용히 방문객을 맞는다. 소쇄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가사문학관이 있다. 내부에는 송순의 면앙집과 정철의 송강집, 친필 유묵 등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가사문학관 바로 앞 강 건너에는 송강 정철이 관직으로 나가기 전인 16살부터 27살까지 김성원 등과 함께 김윤제를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닦던 환벽당이 있다. 식영정-가사문학관-소쇄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광주호를 끼고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다.

가사문학관에서 화순온천으로 가다 보면 마치 드라마 촬영 세트장처럼 한옥 여러 채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전통문화를 연구 계승시키고자 건립한 '향원당(香遠堂)'이다. 이곳에서는 우리 고유의 생활예절과 다도, 궁중·사찰음식 만들기, 한식문화와 한식 상차림, 푸드코디네이션 등을 가르친다. 외국인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1-381-8101.

☞ 길잡이 = 대중교통 : 강남터미널에서 담양행 고속버스 출발. 3시간50분 소요. 대구에서 담양을 경유하는

광주행 직행버스 운행. 3시간 40분 소요. 광주에서 담양행 버스 20분 간격으로 운행. KTX 서울(용산)-광주행: 1일 8회 운행. 광주-서울(용산)행: 1일 8회 운행. 철도공사 예약센터 1588-8545(www.korail.go.kr).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1번 국도-장성호수 북안-담양.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887번 지방도(광주교도소 방향)-담양고서사거리-광주댐-식영정-가사문학관-소쇄원-향원당. 담양읍-887번 도로(담양교 옆길)-5km-오래천 대추교-제월리 삼거리-면양정. 광주종합터미널에서 가사문학관을 운행하는 225, 125번 버스가 수시로 있다. 또 101번 버스가 면양정과 송강정 입구를 지나 담양읍내로 들어온다. 담양읍내에서 대나무골 테마공원과 추월산행(가마골) 버스 하루 9회 운행. 88고속도로 담양 나들목-24번 국도(순창 방향 약 5Km)-석현교 건너 바로 우회전-2Km-대나무골 테마공원. 매주 토요일 담양 군청이 제공하는 버스 투어(대나무박물관 → 죽록원 → 담양호 → 메타세쿼이아길 → 소쇄원)를 이용해 각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금은 초등학생 이상 1만원(점심 포함). 예약 필수. 문의: 담양군청 문화레저관광과(380-3141-4). 광주종합버스터미널(062-360-8800-14), 담양버스터미널(061-381-3233).